현대소설연구 (제74호)
The Journal of Korean Fiction Research
http://doi.org/10.20483/JKFR.2019.06.74.275

손창섭 소설과 니체적 사유의 관련성

서 은 혜*

요 약

손창섭 삶의 핵심적 특성으로서의 '외부성' 혹은 '이방인 의식'은 그의 작품세계를 관통하는 주요한 문제의식의 토대이다. 이와 같은 개인사적 특수성은 니체에 대한 독서 체험을 해석하는 데도 고려되는 요소이다. 「신의 희작」이나 「낙서족」과 같은 자전적 소설에서 읽을 수 있는, 우연히 세상에 잘못 태어났다는 부채감은 자기 자신에 대한 죄의식과 외부 세계를 향한 원한 의식의 결합체로서, 손창섭 소설의 인물들이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심리를 해석하는 매개가 된다. 그리고 이러한 구도의 설정에 인간의 존재론적 상태로서 '무리본능, 원한/ 책임, 자비' 등을 핵심으로 하는 '약자-강자'의 대립구도를 상정하는 니체의 사유틀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니체적 사유와의 관련성은 단순히 손창섭의 자전적 소설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초기 단편인 「생활적」, 「피해자」, 「혈서」의 인물들이 드러내는 과도한 죄의식과 세상에 대한 원한 의식은 자전적 소설 속 인물들의 심리와 밀접하게 연결된다. 또한 작품의 배경 설정이나 인물들의 발화를 통해 추론할 수 있는, 집단을 이루는 다수 혹은 사회의 폭력성에 무방비하게 노출되어 있는 개인에 대한 문제제기는 손창섭이 전후사회의 여러 혼란상(병역, 구직난, 피난사회적 특성)을 나타나도록 하는 생리적 특성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는 '양심의 가책'과 '(진정한) 양심'을 구별하며 전자가 이루는 약자의 무리본능과 그로 인해 구성된 공동체의 개인 소외에 대해 논했던 『도덕의 계보』 속 이야기를 통해 좀 더 정치하게 이해될 수 있다.

* 홍익대학교 초빙대우교수

한편, 「저어」, 「고독한 영웅」, 「잉여인간」과 같은 50년대 중후반 단편 소설에 나타나는, 허례허식에 대한 집착이나 금력, 권력으로 모든 합법적 절차를 무시해 버릴 수 있는 사회의 부패상에 대한 통렬한 비판 역시 니체식의 '강자'상과 겹쳐진다. 이들 소설의 인물들은 외부에서 작용하는 저항에 부딪칠수록 더욱 자신의 내적 힘을 키워나가며 주권적 개인으로서의 힘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처럼 무모할 정도로 우직하게 자신의 신념을 따르다가 갈등을 크게 키워나가는 '고집 센' 인물들, 혹은 '양심적인' 인물들은 이 행위를 통해 그들을 둘러싼 환경의 모순과 부조리, 즉 50년대 사회의 타락과 부패의 심각성을 더욱 두드러지게 보여준다. 이처럼 손창섭은 개인과 사회 사이의 길항과 그 속의 인간이 보이는 존재론적 상태를 저반의 문제의식으로 삼아 1950년대 전후사회의 생리를 묘파할 수 있었다.

주제어: 손창섭, 니체, 약자, 죄의식, 강자, 원한, 책임, 주권적 개인, 힘에의 의지, 부패, 전후사회

목차

1. 서론
2. 니체에 대한 관심: '자기경멸자'의 역전 의지
3. 약자의 '전도된 공격성'으로서의 죄의식
4. 주권적 개인의 존재성과 부패에 대한 저항
5. 결론

1. 서론

손창섭 소설은 자전적 성격과 소설 구성의 관계[1], 창작 방법론의

1) 송기숙, 「창작과정을 통해 본 손창섭」, 송하춘 편, 『손창섭-모멸과 연민의 이중주』, 새미, 2003, 65-88면. ; 방민호, 「손창섭의 ≪낙서족≫에 관한 일고찰-자전적 소설과 세대론의 관점에서」, 『한국현대문학연구』 13집, 한국현대문학회, 2003, 299-328면.

규명[2], 1960년대 신문연재 장편소설 연구[3], 세대론적 토대의 규명[4], 실존 의식[5] 등 다양한 시각으로 접근되어 왔다. 손창섭 소설 연구 초기의 경향이 1950년대 단편소설과 1960년대 장편소설을 각각 실존적 성격과 통속성을 띤, 서로 별개의 것으로 평가한 반면, 1960년대 장편소설 연구가 진행되면서 두 시기의 사이의 연속성을 찾으려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1955년, 혹은 1958년 이후 인물형 설정의 변모 계기와 이유에 대한 해석 역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6] 이와 함께 전후문학 연구 방법론의 확장과 함께 손창섭의 이중언어 사용자로서의 세대적 정체성과 1950년대의 언어 현실, 국가주의 등 시대적 상황과 관련된 단편소설들의 징후적 독해도 이루어졌다.[7]

최근 연구의 경향성은 전후세대로서의 손창섭의 정체성이나 개인사적 특수성과 같은 전기적 배경에 대한 치밀한 탐구로부터 출발한,

2) 유종호, 「모멸과 연민」, 송하춘 편, 『손창섭-모멸과 연민의 이중주』, 새미, 2003, 15-38면. ; 조남현, 「손창섭 소설의 의미 매김」, 위의 책, 135-168면. ; 정호웅, 「손창섭 소설의 인물성격과 형식」, 이호규 엮음, 『손창섭: 생래(生來)와 현실의 비극적 함수』, 글누림, 2011, 69-86면.; 조현일, 「허무주의 심연과 극복의 노력」, 송하춘 편, 앞의 책, 169-192면.

3) 방민호, 「손창섭 소설의 외부성: 장편소설을 중심으로」, 『한국문화』 58집,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012, 197-228면.

4) 방민호, 「손창섭의 ≪낙서족≫에 관한 일고찰-자전적 소설과 세대론의 관점에서」, 『한국현대문학연구』 13집, 한국현대문학회, 2003, 299-328면.

5) 김주언, 「우발성의 휴머니즘-손창섭의 소설을 대상으로」, 『비교문학』 52집, 한국비교문학회, 5-23면.; 정수영, 「손창섭 소설에 나타난 허무주의의 변모와 극복 양상」, 중앙대 석사논문, 2018.

6) 이현석, 「손창섭 소설에서 나타나는 부정성의 의미 변화에 관하여」, 『한국문학논총』 제 50집, 한국문학회, 2008, 417-443면. ; 김진기, 「손창섭 소설과 『사상계』」, 『한국언어문학』 84집, 한국언어문학회, 2013, 327-364면.; 강진호, 「주체의 신념과 절망의 변주곡」, 이호규 엮음, 『손창섭-생래와 현실의 비극적 함수』, 글누림, 2011, 123-150면.

7) 한수영, 「식민화된 주체와 언어적 타자의 위치-손창섭」, 『전후문학을 다시 읽는다』, 소명출판, 2015, 273-304면. ; 김진기, 「반공의 내면화와 정체성의 구축」, 『겨레어문학』 41, 겨레어문학회, 2008, 425-458면.

소설 세계의 연속성과 결절점을 재구성하려는 시도로 요약해 볼 수 있을 것이다.[8] 한수영은 1920년~1935년 사이 출생하여 일본 식민지 교육을 받은 전후세대 공통의 교육적 배경이 해방 이후 그 기억을 지우려는 '의도적 망각'과 새로운 언어권력으로서의 '영어'에 대한 외부자적 시선을 가능하도록 한 요인이었음을 논하고 있다.[9] 또한 한 곳에 정주하지 못하고 떠돌며 생활고, 가족의 해체, 이데올로기 갈등을 겪었던 손창섭의 개인사적 특수성에 좀 더 주목하는 연구들도 있다. 김진기는 손창섭 소설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적 논리가 '인간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채 태어났다고 스스로 의식하는' 개인사적 특수성에 기반한 원한과 복수라는 차원에서 발현된 것이고, 이 반동으로서 1950년대 소설 전반에 걸쳐 소외된 자들에 대한 연민이 부각되고 있음을 말한다. 자신을 제외한 모든 사회 집단을 적으로 돌리고 고독하게 항거하는 외부자적 인물형, 여성 인물에 대해 깊은 연민을 보이는 인물들은 이와 같은 욕망 하에서 창작된 것들로 본다.[10] 강유진과 방민호는 손창섭 삶의 외부성 혹은 '재류외인(metoikos)'적 특성, 즉 의결과 재판 등 정당한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애초부터 가지지 못했다는 인식이 그의 1960년대 장편소설의 한국사회에 대한 총체적 비판을 가능하게 한 동력이 되었다고 논의하고 있다.[11]

한편, 손창섭 삶의 특수성과 독서체험 사이의 관련성을 세밀하게 밝히고, 이를 소설세계의 형성과 관련지으려는 시도도 행해지고 있

8) 방민호, 「손창섭의 자전적 소설들」, 『한국 전후문학과 세대』, 향연, 2003, 163-202면.
9) 위의 책, 273-304면.
10) 김진기, 「1950년대 손창섭 소설의 현실지향성 연구」, 『어문논집』 77, 민족어문학회, 2016, 69-108면.
11) 강유진, 「손창섭 소설의 변모 양상 연구」,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방민호, 앞의 글, 197-228면.

다. 앞서 언급한 손창섭 특유의 '이방인 의식'으로부터 비롯된 루소에 대한 공명이 어떤 식으로 그의 소설에서 '동정심'과 '양심'의 주제를 형상화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지를 논증한 연구가 이에 해당될 것이다.[12] 손창섭이 개인적 삶의 이력에 대해 거의 회고를 남겨놓지 않은 작가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작가의 특수한 정서구조와 독서체험의 관련성 및 현실을 바라보는 시각을 상호 관련시켜 접근하는 방식은 소설세계의 연속과 결절점을 보다 주밀하게 확인하는 데 있어 현실적으로 시도 가능한 의미 있는 방법론이라 생각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글에서는 손창섭 자신이 대학 시절 '도취되었다'고 고백한 바 있었던 니체적 사유와의 관련성을 살펴보고자 한다.[13] 손창섭이 교토 시절 경도되었다고 회고한 바 있는 사상가는 루소와 니체였으며, 그는 이들을 '인생학'이라 여기며 받아들였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그만큼 삶이나 세계에 대한 태도, 감수성 형성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강조하는 발언일 것이다. 이로부터 니체에 대한 독서가 손창섭 자신의 개인사적 맥락에서 형성된 특수한 정조를 기반으로 한 굴절적 수용이 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는 만큼, 자전적 소설이나 회고들과 비교하며 공명한 지점을 분석하고 이것이 그의 소설 창작 과정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쳤는지를 규명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니체는 인습적 삶에 경도된 삶을 거부하고 삶의 긍정과 타자에 대한 인정을 수행하는 실존적 인간으로서의 초인을 제시하여, 실존주의의 맥락의 초기 자리에 포함되기도 하는 사상가이다. 무엇보다도 그는 '힘에의 의지'를 기본 개념으로 하여 인식론, 존재론, 윤리

12) 김진기, 「손창섭 소설에 미친 루소의 영향」, 『겨레어문학』 제50집, 겨레어문학회, 2013, 5-41면.

13) "나는 다만 문학을 인생학(?)이라 생각하고 관심을 기울여왔을 뿐이었다. 그 무렵 룻소오와 니이체에게 도취되어 나는 열병환자처럼 된 적이 있었다." ; 손창섭, 「나의 작가생활」, 『현대문학』, 1955.9, 138면.

론 등을 포괄적으로 구성하며, 인간의 삶의 태도를 건강성과 병리성의 두 축으로 양분하여 설명하면서 '건강한 인간'으로서 갖추어야 할 자질을 존재론적 사유의 핵심으로서 제시하고자 하였다.[14] 그는 19세기 유럽의 허무주의와 무기력함을 그리스도교 등을 통해 전개된 데카당스적 경향의 결과라 보고, 철학자의 역할을 이러한 병리적 상태를 극복할 수 있는 치유자로 보고 있다. '강자-주권적 개인-귀족적 개인', '약자-원한의 인간-노예적 인간' 등으로 이분화되어 전개되는 그의 존재론은 인간이 허무주의라는 '병리적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한 세계 인식틀의 결과라 할 수 있다.

그의 도덕론 역시 이와 같은 존재론의 일환이라 볼 수 있는데, 인간을 약자의 상태에 머무르게 하는 도덕은 니체가 보기에 진정한 도덕이 아니다. 이에 해당되는 것은 금욕주의, 도덕의 절대성을 주장하는 것, 원한과 복수라는 감정을 제도화한 반자연적 도덕이 있다. 이를 벗어나려면 도덕이 그것이 수행되는 시공간적 맥락에 따라 상대화될 수 있는 해석적 체계임을 인정해야 하며, 진정한 강자의 윤리인 '자비'와 '관용', '책임'을 통해 생의 의지를 고양시킬 수 있는 유용한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15]

손창섭 소설에서 니체의 영향을 짐작할 수 있도록 하는 요소는 적지 않다. 「잡초의 의지」와 『길』에서는 직접 이름을 언급하고 있으며, '잉여인간(Der Überflüssige)'이라는 용어의 사용[16], 「미해결

14) 백승영, 『니체, 철학적 정치를 말하다』, 책세상, 2018, 48-67면/ 153-169면 참조

15) 백승영, 『니체, 디오니소스적 긍정의 철학』, 책세상, 2005, 546-597면 참조

16)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중 〈잡것에 대하여〉, 〈새로운 우상에 대하여〉, 〈건강을 되찾고 있는 자〉 등에 나오는 '왜소한 인간(Die kleine Menschen)', '잡것 (혹은 천민 Das Gesindel)', '잉여 인간(Die Überflüssige)' 등이 약속의 망각, 노예성, 안전과 보호의 희구, 힘관계에서 벗어난 동정과 위로를 바라는 인간형을 공통적으로 지칭한다고 한다.: 백승영, 앞의 책, 2018, 220-221면.

의 장」에서 인간 세계를 병균들이 가득한, 병리적 세계로 바라보는 수사가 나오는 부분, 「포말의 의지」에서 몸을 파는 것 자체를 '죄'로 여겨 멀리하는 그리스도교 이모 내외에 대한 반감 등만 보아도 표면상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요소가 적지 않다.[17] 그러나 이뿐만 아니라 원한의 인간이 지닌 죄의식, 인습적 도덕의 타당성에 대한 천착, '고독한 개인'이라는 주제에 대한 지속적 관심, 힘을 인간세계가 운용되는 주요 원리로 본 세계관 등 손창섭 소설의 반복적 주제와 인물형을 니체적 사유틀에 기반하여 설명할 수 있는 풍부한 가능성이

17) 손창섭과 니체적 사유의 관련성에 대해 언급한 연구로는 정은경, 「손창섭 소설에 나타난 악(惡)의 표상 연구」(『어문논집』 54, 민족어문학회, 2006, 313-347면.) 김민수, 「손창섭 소설에 나타난 공동체 의식 연구」(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7)과 정수영, 「손창섭 소설에 나타난 허무주의의 변모와 극복 양상」(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8)이 있다. 정은경의 연구는 손창섭 소설에 묘사된 악을 자연적 악, 도덕적 악, 존재론적 악으로 구분하고, "인간을 종말에의 의지로 이끄는 존재론 악에 항거하는 자유 의지로서의 '발악'과 '위악'"을 핵심적 특징으로 지적하고 있다. 「생활적」, 「사연기」에 나타난 생존 본능과 이기심, 「얄구진 비」의 저항의식을 들고 있다. '생의 의지'에 대한 파악 이외 1950년대 중반, 후반 소설들의 주제의식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생의 의지'이외 '책임'이나 '고독'의 의미망을 좀 더 살펴볼 여지가 있다.
정수영의 연구에서는 쇼펜하우어와 니체의 '허무주의' 개념을 통해 손창섭 소설을 읽고자 한다. 이 때 「공휴일」, 「사연기」, 「생활적」 등 초기소설의 극단적 허무주의를 극복하려는 의지와 영원회귀의 사상이 어느 정도 「잡초의 의지」, 「잉여인간」과 같은 소설에서 드러난다고 보지만, 「포말의 의지」에서는 다시 이러한 허무주의 극복의 시도가 퇴보했다고 해석하여 '허무주의'에 대응하는 작가의식의 혼란을 전제하고 있다. (위의 글, 34-38면.) 니체의 '불완전한 허무주의' 및 '완전한 허무주의'의 구분법에 의거하여 소설을 분류하고 있는 점, 이에 따라 인물형 창작에 작용한 작가의식의 연속성을 밝힌 점에 의의가 있으나, 니체적 사유를 전면화한 「고독한 영웅」이나 신문연재 장편소설 『길』 등의 작품 분석이 니힐리즘 극복이라는 면에서 추가적으로 보완될 필요가 있다.
김민수의 연구에서는 맹목적 신앙에 대한 비판, 시스템으로서의 악과 이에 대항하는 개체적 인간의 자유라는 사유라는 니체적 사유를 담고 있는 소설로 「포말의 의지」, 「잡초의 의지」, 『낙서족』을 분석하고 있다. (위의 글, 43-56면.) 고독한 개인의 자유가 지니는 힘이라는 사유적 틀이 손창섭과 니체에게서 어떤 식으로 맞닿아 있는지를 포착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으나, '공동체 의식'이라는 핵심어 내에서 이루어진 연구여서 역시 위에서 언급한 보다 더 다양한 단편소설을 관통하는 니체적 사유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있다.

손창섭이 한때 니체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던 이유는 다양한 측면에서 추론해 볼 수 있는데, 우선 우연히 세상에 태어났다는 부채감 및 죄의식, 외부적 '힘'과 이에 대한 주체의 대응에 대한 민감한 자의식을 설명해 볼 수 있다. 니체의 설명 방식은 '힘에의 의지'로 상징되는 자기 지배의 능력으로 외부 세계와의 관계 맺음의 방식을 제시하고 있고, 삶을 사는 태도로서 약자의 존재방식인 '원한'을 극복할 수 있는 설명 방식을 제공하고 있기도 하다.[18] 또한 만주, 일본, 이북, 이남을 전전하며 살았던 고된 삶의 이력 중 손창섭이 해방 후 2년 동안의 평양 생활에서 이데올로기 갈등을 경험했다는 것에 대한 제자 노윤기의 증언이 있으며[19], 남한 사회에서의 삶도 결코 주류의 삶이라 보기는 어려웠다. 이처럼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옳은 것'이 강요되는 시점에 그에 저항하는 개인의 위치를 고수하는 데 있어, 기존의 인습적 도덕을 타파하고 개체의 실존적 결단에 기반한 새로운 윤리를 확립하려 했던 니체의 주장은 남달리 저항의식이 강했던 손창섭에게 강한 울림을 주었을 것이라 짐작된다.

이처럼 니체적 사유의 틀과 1950년대 손창섭 소설의 주제 의식을 연결 지어 읽는 것은 인간 집단이나 사회, 그리고 그 안에 처한 개인의 위치와 길항을 날카롭게 묘파한 손창섭의 시선을 좀 더 수면 위로 부각시킬 수 있는 방식이 될 것이다. 1950년대 단편소설들이 대체로 시대적 상황이나 사회상을 희미한 '배경'처럼 처리하고 있는 만큼, 표면적으로 강력하게 드러나지 않은 사회, 집단에 대한 근원적 사유의 방향성을 추론할 수 있는 근거가 되리라 생각한다. 또한 니체 식의 '약자-강자'의 대립형과 관련된 인물 구도의 설정이 '위선

18) 문학을 직업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인생학'의 한 부분으로 여기던 시기에 루소와 니체에 도취되었다는 손창섭의 언급으로부터 이러한 가능성을 추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19) 정철훈, 『내가 만난 손창섭』, 도서출판 b, 2014, 206면.

폭로', '부패 비판' 등의 1950년대 사회적 문제와 결합되는 양상과, 이를 통해 1960년대 한국사회 현실을 비판적으로 조감하는 장편소설의 길로 나가는 예비단계가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2. 니체에 대한 관심: '자기경멸자'의 역전 의지

손창섭이 한때 니체에 깊이 공명했던 이유는, 니체가 말하는 약자에서 강자로의 존재론적 변환, 그 동력으로서의 힘에의 의지라는 사유가 작가 자신의 개인사적 맥락을 하나로 엮어 설명해 줄 수 있는 매개라 여겼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 문학을 하게 된 개인적 동기를 언급하는 자리에서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의 이야기를 읽으며 느꼈던 공감과 위안, 그로 인해 촉발된 "인간이나 인생에 대한 구체적인 관심"을 말하는 부분이 빠지지 않는다는 것을 고려한다면,[20] 가족 부재나 생활고 등으로 점철된 고된 삶에 대한 고민과 그에 대한 감내 의지가 그의 문학 행위의 근원 중 일부를 이루고 있음을 추론해 볼 수 있다.

자전적 소설로서 평가되는 「신의 희작」이나 「낙서족」의 공통 모티프를 수렴해 추론해 보았을 때, 세상에 잘못 태어났다는 죄의식과 인간으로서의 구실을 제대로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수치감이 방향을 바꾸어 모든 세상에 대한 '원한 의식'을 형성하게 했다는 사실은 작가에게 일종의 원체험적 요소와 같이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원한 의식은 자전적 소설뿐만 아니라, 「피해자」나 「공포」의 주인공의 주요 심리로도 실감나게 묘사되어 있기도 하다.

이 원한 의식의 형성과 전개 과정은 그 자체로 복합적 심리의 매

20) 손창섭, 「나의 작가생활」, 『현대문학』, 1955.9, 137면.

커니즘을 전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우선, 자전적 인물들의 원한 의식은 자기에 대한 극도의 수치감이나 죄의식이 외부 대상에게로 투사되어 방향을 바꾼 것이다. 「신의 희작」에서 어머니가 다른 남자와 동침하는 것을 본 S는 이후 어머니가 그 남자와 관계를 지속하는 것을 알게 되면서 스스로 머리를 때리며 "칵 뒈져라, 뒈져."라며 스스로에 대한 살의를 느낀다. 이 장면을 주목해 봐야할 것은 어머니의 동침을 목격한 사건과 그 "멧돼지 같은 남자"를 다시 본 사건 사이에 어머니의 손길에 반응한 사건에 대한 수치심이 서술되어 있다는 것이다. 단순히 어머니와 다른 이의 동침을 보았다는 수치심에 머무를 수 있었던 이 사건은 자신 역시 어머니와 동침한 남자와 같은 위치에 있을 수도 있다는 새로운 차원의 '수치감'으로 전이되며 자기 자신을 그 남자와 대등한 지위, 경쟁자의 지위로 격상시키게 되는 역할을 한다. 이 때 나의 수치감이나 죄의식은 "멧돼지 같은 그 남자"를 사모한 어머니가 나를 죽일지도 모른다는, 변형된 오이디푸스적 콤플렉스에 의한 피해 의식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이다.

> 이 수치감은, 마침내 어머니의 동침 사건과 결부되어 극히 희미하나마 일종의 까닭 모를 공모의식 같은 것으로 변하면서 그의 심중에 번져갔다.
>
> 사건 이후에도 어머니가 그 남자와 만나는 것을 알았을 때, S는 더욱 강하게 그런 야릇한 심리를 경험했고, 오금이 나른하도록 풀기가 꺾였다. (중략)
>
> "칵 뒈져라, 뒈져."
>
> S는 어느 집 뒷벽에 기대서서 그렇게 저주하며 두 주먹으로 자기 머리를 자꾸만 쥐어질렀다. 그것은 어머니가 자기더러 그러는 것이다. 한편 그것은 자기가 어머니에게 그러는 것이기도 했다.
>
> 어머니는 날더러 칵 뒈지라고 했다. 어머니는 그 남자와 동침하기 위해서는 정말 나를 죽일지도 모른다. 어째 꼭 그럴 것

만 같았다. 그는 무서운 생각이 들었다.[21]

자신이 죽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극복하기 위해 S가 시도한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어머니에게 먼저 스스로 자신이 죽을 것임을 선언하면서부터이다. 어머니에게 죽음을 선언한 이후 실제 자살 시도를 한 S는 그 죽음을 통해 어머니에게 내밀한 복수를 행한다는 "기묘한 승리감에 도취"된다. 이 순간부터 S는 자신이 우연히 세상에 태어났다는 부채감이나 적절치 못한 존재라는 이질감이 들 때마다 자멸의 방식을 선언함으로써 힘의 관계를 역전시키고자 한다. 상급생 백곰에게, 자기를 가로막는 세상에 대해 "난 부모두 형제두 집두 (조국두) 없는 사람"이라며 자멸에의 자신을 선언함으로써 상대에게 두려움을 주는 방식을 지속해 나가는 것이다.

「신의 희작」의 S가 비극적 유머를 체현하는 인물로 그려지는 것은 바로 이 자멸에 대한 선언이 내포하는 세상에 대한 원한의식이 항상 너무 크거나 혹은 너무 작은 대상으로 적절치 못하게 귀착된다는 점에 있다. 가령 '라이프 워크'를 '워크 라이프'라 우기면서 영어 교사와 대립하는 장면에서, S는 자신이 고집이 그 교사에 대한 반항이 아니라 "영어에 반항"하는 것이며, "돼먹지 않은 영어의 노예가 된 인간을 경멸"하는 것이라 말한다.[22] 그런데 학생 신분으로 자신이 특정 단어의 의미를 정하는 행위만으로는 해방 이후 강한 세력에의 추종을 생존의 미덕으로 삼으며 영어를 신성시하는 생존 태도 자체에 어떠한 영향도 미칠 수 없다. 원한의 대상이 터무니없이 크다는 점, 그 갑작스러움이 S의 유머를 배가시키는 것이다.

혹은 그 대상이 너무 작아서 유머를 발생시키기도 한다. '해방 따라지'로서 어려운 생활을 이어오며 그가 하게 되는 최후의 반항은

21) 손창섭, 「신의 희작」, 『손창섭단편전집 2』, 가람기획, 2005, 197-198면.
22) 위의 책, 222면.

이 사냥을 하는 것이다. "원한의 이 부대의 토벌"이라 표현된 이 장면은 비극적이며 동시에 유머러스하다.[23] 집 한 칸 마련하지 못하고 하루하루 먹고 사는 걱정에 시달리는 '조국마저 없는' 존재는 자신을 괴롭히는 이를 잡을 때의 복수의 통쾌감 정도로만 그 현실을 견뎌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원한의식의 대상이 항상 너무 크거나 너무 작은 형태로 놓인다는 사실이 S가 가진 비극적 유머의 주축을 이루고 있다.

이들의 세상에 대한 원한 의식은 약자에서 강자로의 변환 과정을 비유적 수사로 서술하고 있는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에서, '더없이 추악한 자'로 묘사된, 자기경멸자의 모습과 유사해 보인다. 니체는 한 개인이 자기에 대한 경멸과 사랑 사이의 다양한 스펙트럼을 오가는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을 적시하고 있고, 초인의 탄생기라 할 수 있는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의 '더없이 추악한 자'라는 부분을 통하여 이러한 자기경멸과 자기애 사이의 복합적 연결성을 말하고 있다. '더없이 추악한 자'란 인간의 운명을 끊임없이 바라보는 신의 눈길을 거부하고 그를 죽인 자이자, 동시에 인간 세계의 연민을 거부하는 자를 말한다. 차라투스트라가 보기에 이 자는 더없이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반대급부로서 자신을 경멸하는 자이기도 하다. 그리고 그 반동으로서 그는 치장과 변장 등으로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가리려는 허영심을 보여준다. 차라투스트라는 그 역시 비뚤어지긴 했지만 자기 사랑의 한 형태이기에 "그것 또한 높은 경지"라 이야기하지만, 그 위대한 경멸자 역시 궁극적으로는 극복되어야 할 대상이라 여긴다.

23) "우스운 일은, 그는 차츰 이러한 이 사냥에 흥미를 갖기 시작한 것이다. 그것은 그에게 있어서는 최후의 의미였다. 대개 한 주일에 한 번 정도씩 한강가 모래터를 찾아 나가 벌거벗고 이 사냥을 했다. 그 한 주일이 기대를 갖고 지루하게 기다려졌다. 그동안에 그는 자기 몸의 이를 소중히 길렀다. 물론 토벌하는 날의 그 통쾌함과 나른한 흥분을 위해서다." : 위의 책, 234면.

> 그는 마음속으로 생각해보았다. "도대체 사람들은 얼마나 가난한가! 얼마나 추악하며, 얼마나 골골거리며, 얼마나 남모를 수치심으로 가득 차 있는가!
>
> 그들은 내게 사람은 스스로를 사랑한다고 말한다. 아, 이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은 어느 정도로 커야 하는가! 얼마나 많은 자기경멸이 이 사랑에 맞서 있는가!
>
> 저기 있는 자 또한 자기 자신을 경멸했듯이 자기 자신을 사랑했다. 내 보기에 그는 크게 사랑하는 자이며 크게 경멸하는 자다. (중략) 나는 위대한 경멸자를 사랑한다. 그러나 사람은 극복되어야 할 그 무엇이다."[24]

> 더없이 추악한 자는 왕관 하나에 두 개의 자줏빛 허리띠를 두르고 있었다. 추악한 자 모두가 그러하듯 그 또한 변장을 하고 멋들어지게 치장하기를 좋아하기 때문이었다.[25]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의 후반부에서 교황, 늙은 마술사, 정신의 양심을 지닌 자 등과 함께 '보다 높은 인간', 초인이 되기 위한 전 단계로서 교량의 역할을 하는 인간 군상 중 하나로 등장하는 '더없이 추악한 자'는 차라투스트라와의 만남 이후에도 여전히 "왕관 하나에 두 개의 자줏빛 허리띠를" 두른 모습이 상징하듯, 허영심을 버리지 못한 모습을 보인다.[26] 이러한 그의 모습은 차라투스트라가 보기에 여전히 존재론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약자의 모습과 겹쳐지는 것이다. 따라서 그는 「보다 높은 인간에 대하여」 장에서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것은 바라지도 말라"며 "정직 이상으로 소중하고 귀한 것은 없"다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더없이 추악한 자'의 허영에 대한 답변으로 읽힐 수 있다. 이후 차라투스트라가 말한 정

24) 프리드리히 니체, 「더없이 추악한 자」, 정동호 옮김,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책세상, 2002, 430면.
25) 프리드리히 니체, 「환영인사」, 위의 책, 449면.
26) 위의 책, 같은 면.

직과 삶에 대한 긍정('춤'과 '웃음'으로 상징되는)을 체현한 '더없이 추악한 자'는 어린아이같이 순수한 심경으로 삶에 대한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마침내 지상에서의 삶이 의미 있는 일이라는 것, 삶이 다시 한 번 반복되도록 긍정하겠다는 영원회귀식 사유의 첫머리를 여는 역할을 하게 된다.[27]

자신의 운명을 주조했다는 신을 살해하고 사람들의 연민을 거부하며 자기 경멸에 괴로워하는, 그리고 그 경멸을 덮기 위해 왕관과 띠로 자신을 치장하는 허영심을 보이기도 하는 '더없이 추악한 자'의 모습은 「신의 희작」에서 자신을 만든 조물주에 대해 반역하듯 사람들과 부딪치는 S의 모습, 독립운동을 한다는 대의를 체현하고 있는 아버지의 형상에 자신이 부족하다는 자책감에 시달리는 『낙서족』의 도현과도 겹쳐진다. '신'으로 상징되는 세계 전체에 대한 근원적 반역을 형상화하고자 한 「얄궂은 비」의 주인공 역시 일정 부분 이러한 형상을 따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니체의 틀 안에서 자기경멸자로서의 '더없이 추악한 자'가 웃음과 정직의 가치를 체현하고 삶을 긍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일종의 존재론적 변환에 해당되는데, 이와 같은 인물 형상이 손창섭 자신의 자전적 삶을 부조하는 데 있어 적합한 틀이라 판단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둘 수 있을 것이다.

자기경멸에서 긍정으로의 변환과 내적인 힘의 체감에 대한 기억은 문학을 하게 된 동기에 대한 회고로부터도 찾아볼 수 있다. 실제 손창섭은 교토서 중학을 다니던 시절 우유배달을 하며 세계문학전집을 위시한 문학책에 빠져들게 된다. 그것은 어려서부터 죽을 지경에 이르더라도 자신의 힘이 아니면 살아나올 수 없다는 비정한 진실을 뼈저리게 체감한 그에게 있어, 자기 자신의 고된 삶보다 더 힘든 생활을 이어나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주는 연민과 공감을 주었기 때문이다.

27) 프리드리히 니체, 「명정의 노래」, 위의 책, 513면.

> 나는 도스토이에프스키이, 필립프, 체에홉의 작품을 통해서, 나보다 더 괴롭고 불행한 사람들을 발견했다. 자신이 가장 괴롭고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던 당시의 나에게 그것은 적지 아니한 경이였다. 나는 좀 더 여러 작가의 작품을 읽는 동시에 차츰 냉정한 눈으로 주위를 관찰하기 시작했다. 그제야 비로소 나와 같이 혹은 나 이상으로 불행한 사람이 세상에 꽉 차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때까지 모든 사람에게 반감과 적의를 가지고 대해 오던 내 태도가 차차 달라지기 시작했다.[28]

주위 사람들에 대한 연민을 바탕으로 한 리얼리스트의 탄생으로도 읽을 수 있는 위와 같은 인용문은, 다른 결에서 읽어보면 세상의 박해에 시달리던 한 어린 아이가 스스로 그 박해로부터 벗어나 다른 이들을 연민의 눈으로 살펴볼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순간으로도 읽어볼 수 있다. 즉 문학은 손창섭에게 있어 최초로 자신이 세상에서 살아갈 능력을 갖춘 인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 준 계기였으며, 어렵고 핍박받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그리는 것이 그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사명'의 일환이라는 것을 체감하도록 한 기회였다는 것이다. 문학과의 만남이 곧 원한의식에 사로잡힌 약자의 입장에 놓여 있었던 자신 안에 내재된 자기긍정의 힘을 깨닫고 새롭게 강자의 위치로 전환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작가 스스로의 이러한 체험은 이후 소설 창작 과정에서 다수의 무리나 사회의 공격성에 무방비하게 노출된 개인의 이야기를 그리거나, 혹은 이러한 상태로부터 벗어나 세상과 부딪히며 스스로의 정체성을 정립해 나가는 고집 센 인물들, 또는 세상의 모순에도 굴복하지 않고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양심적인 인물을 그려내는 과정으로 이어지게 된다.

---

28) 손창섭, 「나의 작가생활」, 『현대문학』, 1955.9, 137면.

3. 약자의 '전도된 공격성'으로서의 죄의식

손창섭 초기 소설에 나타난 인물들 특유의 죄의식은 주로 그 죄의식의 크기에 합당할 만큼의 죄를 보여주지 않아 아이러니를 발생시키는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그의 소설 속 인물들이 보이는 죄의식이 작가 손창섭의 지배적 정서구조와도 긴밀히 연결된 것임은 앞서 서술한 바와 같다.[29] 그러나 그것이 단순히 작가의 개인사적 맥락과 관련된 자전적 언술로만 드러나는 것은 아니다. 「생활적」(1953), 「피해자」(1955), 「혈서」(1955)에서 인물들이 드러내는 죄의식은 전후 한국사회의 부조리와 만연한 집단적 공격성을 감내하지 못한 인물의 파탄을 우회적으로 드러내 보여준다는 점에서 더욱 문제적이다.[30]

이 소설들에서 인물들이 보이는 과도한, 기이한 죄의식은 외부 세계의 모순과 불합리에 대한 '원한'의 변형 심리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전제는 개인의 삶의 조건을 파멸시키는 냉혹한 집단의 생리를 암시적으로 드러내는 결과를 낳는다. 「혈서」에서 나타나는 극심한 구직난에 생존마저 불가능하게 하는 삶의 조건, 「생활적」의 한 장면에서 드러나는 무리에 속하지 않는 사람을 배척하고 따돌리는 피난

29) 손창섭 소설의 죄의식을 지배적 정서구조로 두고 분석한 연구로는 이수형, 「1950년대 손창섭 소설에 나타난 죄의식에 관한 연구」, 『한국학논집』 41집,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2010, 219-223면.; 손창섭의 초기작이 작가의 왜곡된 심리가 투사된 '모놀로그(monologue)'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는 언급은 강진호, 앞의 책, 132면.

30) 이러한 관점은 손창섭이 경험한 유년기의 개인적 폭력과 해방기 이후 체험한 멸시와 배척의 사회적 폭력이 냉소와 자조, 체념, 허위와 불신 등 손창섭 작품세계를 규정하는 주요 동인이 되었다는 관점에 닿아 있다. (최강민, 「손창섭 소설에 나타난 폭력성-1950, 60년대 소설을 중심으로」, 이호규 엮음, 앞의 책, 179면.) 단, 이 장에서는 '사회적 폭력'으로 지칭된 배제와 멸시의 논리가 서사 속에서 구현되는 과정과 그 속에 개입된 심리적 매커니즘을 니체적 사유틀을 빌려 좀 더 정치하게 분석해 볼 것이다.

사회 구성원들의 공격성, 「피해자」에서 월급을 제때 받지 못하는 경제적 약자의 입장에 처하고도 제대로 항변조차 하지 못한 채 책임을 다하지 못한 가장으로서의 불명예를 안고 자살을 시도하는 불합리성 등이 이에 해당된다.

「혈서」(1955)에서 달수는 취직을 못하고 있는 자신에게 죄의식을 느낀다. 분명 전후 사회의 특수한 경제적 사정이 취직난을 만들어낸 것임에도, 그는 자신의 존재 자체가 쓸모 없는 것 같은 느낌, 영원히 불행 속에서 살아가야 할 것만 같은 절망을 보여준다. 달수가 경험하는 취직난의 고통은 「신의 희작」의 S가 겪는 것과 유사한데, '해방 따라지'인 그가 의지할 데 없이 생존을 위해 취하는 방법은 무작정 음식점에 들어가 자신을 써 달라고 말하며 다니는 것뿐이다. 이 장면으로 미루어볼 때 S와 유사하게 가게마다 다니며 자신을 써달라고 말하는 달수의 구직 행위는 자전적 경험에 기반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그 시기 하층민이 통상적으로 경험하는 실제 내용을 소재로 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

> "오늘두 취직을 못 해서……"
> 이것이 달수의 대답인 것이다. 자기가 취직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 달수에게는 누구 앞에서나 죄스러웠던 것이다. 그러나 달수의 뚱딴지같은 대답에 준석은 실없이 화가 동하는 것이다. 밥은 굶었느냐고 묻는데 취직을 못했다는 건 무슨 얼빠진 수작이냐는 것이다.[31]

> 수포水泡라는 통속적 한자어는, 어둠 속에 무수히 떴다 사라지는 물거품을 그에게 거푸 보여주는 것이었다. 한편 그러한 그의 헛수고는 비단 오늘에 한한 일만이 아닌 것 같았다. 그것은 오늘이라는 시간을 기준으로 출생 이전의 무한한 공간에서부터 이랬고, 앞으로는 또 죽은 뒤에까지도 영원히 이렇게 불

31) 손창섭, 「혈서」, 『손창섭단편전집 1』, 가람기획, 2005, 139면.

행할 것만 같았다. 대문 없는 대문 안에 들어서며, 어쩔 수 없이 인제 나는 파멸인가보다, 라고 신음 소리같이 중얼거려보는 것이다.32)

이 소설에서 주목되는 것은 달수와 준석이 각자 가지고 있는 죄의식을 서로를 향한 공격의 도구로 사용하며, 이 과정에서 사디즘-매저키즘적 욕구가 뒤섞여 폭발하는 결말부이다. 달수가 가진 영원한 불행의식, 이와 결부된 죄의식은 병역 기피자라는 공격을 받으며 순순히 제 검지손가락을 자르도록 내놓는 행위로 이어지게 된다. 자신이 병역기피자가 아니라 고학생일 뿐이라 항변하던 이전의 모습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았을 때 준석의 공격에 대해 순순히 대응하는 달수의 모습은 파격적이다.

한편 배가 부른 창애가 규홍과 맺어질 수 없음을 주장하는 달수의 말에 대하여, 준석은 그것이 자신의 책임이 아님을 주장하고 도리어 달수에게 화를 낸다. 병역 기피자라는 공격과 뒤이은 검지 자르기의 소동은 창애를 임신하도록 했다는 달수의 말을 듣고 일어난 일이다. 즉 준석이 내밀하게 가지고 있던 죄의식이 달수에 의해 자극받은 이후, 그 죄의식은 방향을 틀어 달수에 대한 격렬한 공격본능으로 선회하게 되는 것이다.

"이 자식아, 창애의 배가 불렀건 꺼졌건 그게 나하구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이냐? 창애의 배는 어디까지나 창애의 배지, 내 배는 아니다. 창애 배가 부른 게 어째서 내 죄란 말야."
하고, 악을 쓰듯이 들이대는 것이었다. (중략)
"이 육실할 자식아. 너는 국적國賊이다. 병역 기피자니까 너는 국적이나 같아. 이 자식 어디 견뎌봐라. 내 당장 경찰서에 고발하구 만다. 너 같은 건, 너 같은 악질은 문제 없이 사형이야, 사형. 내 당장 가서 고발하구 올 테다."33)

32) 손창섭, 「혈서」, 위의 책, 138면.

준석의 창애에 대한 죄의식은 스스로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외면함으로써 생긴 것이며, 따라서 스스로 인정할 수 없는, 밖으로 몰아내야만 하는 불편한 감정이다. 따라서 준석의 죄의식은 곧장 달수에 대한 공격으로 이어지게 된다. 그런데 달수에 대한 준석의 공격은 그가 '병역기피자'라는 것을 향한다는 것이 주목된다.

이 '병역 기피자'의 표상은 어느 정도 당대의 시대상을 반영한 부분이다. 1951년 국민방위군 사건 이후 병역법 개정이 이루어지는데, 이 개정안에서는 대통령령에 의해 재학생들의 징집연기가 가능했고, 1952년 5월은 약 11만 명의 학생들이 징집연기대상으로 집계되기도 하였다. 징집연기를 받지 못하는 징집대상자들은 이러한 조항의 불공정성을 비판했고, 전쟁이 끝난 이후에도 미군에 의한 한국군 증강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동원 병력이 늘어나자 징집 연기대상에 대한 특혜 논란은 더욱 강화되었다. 그리고 1955년에는 재학생 징집연기 폐지를 둘러싸고 국민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문교부와 국방부 사이의 갈등이 가시화되기도 하였다. 이는 이후 1957년 '국민개병'을 전면화한 병역법 개정으로 이어지게 된다.[34]

달수에 대한 준석의 공격은 이와 같은 현실적 배경을 바탕으로 한 것인데, 그것이 준석 개인이 죄의식을 자극받은 뒤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 사용하는 '명분'으로 설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준석의 발화 속에서 병역 불이행이 곧 국적(國賊)과 동일한 지위로 치환되는 과격한 논리적 비약 역시 이와 같은 죄의식 무마를 위한 공격성의 강도를 여실히 보여준다. 즉 손창섭에게 있어서는 병역 미이행이나 징집 연기와 같은 현실적 소재 그 자체보다는 공동체 내부에서 벌어지는 갈등이 실은 내밀한 죄의식과 부채감의 소산일 수 있

33) 위의 책, 159면.

34) 백승덕, 「이승만 정권기 국민개병 담론과 징병제 시행」,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49-50면.

음을 달수-준석의 에피소드를 통해 보여주는 것이다.

「피해자」(1955)의 병준은 완벽하게 장인과 아내에게 지배당하는 입장이라는 점에서 약자의 과도한 죄의식과 그 변형태로서의 자기 공격본능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처음 만난 때부터 장인이 된 애꾸눈 반장은 직업이며 결혼 여부를 꼬치꼬치 캐묻고, "병준은 첫날부터 완전히 지배당하고 만"다.[35] 가정을 꾸릴 자신도 없이 덜컥 결혼하게 된 병준은 의붓자식인 달영의 존재, 또 월급이 밀려 받지 못하는 문제로 전전긍긍하게 된다. 흥미로운 것은 병준이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 부당하다고 느끼는 박해의식으로부터, 결국 모든 것이 자신의 죄요 책임임을 인정하는 죄의식의 상태로 서서히 이동해 가는 심리 변화의 추이이다.

소설 속에서 의붓자식 달영을 볼 때마다 병준은 "세상 일이란 모두가 자기에게 박해를 가하기 위해서만 꾸며진 것 같이 생각"된다. 이 박해의식은 우연히 자신이 세상에 태어났고 그것이 실수나 과오라는 감각으로부터 이어진 것이다. 즉 과오로 태어난 자신에 대해 세상이 박해를 가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월급을 받지 못한 자기가 당연히 죽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기이한 죄의식도 모두 이 감정에 자연스럽게 연결되게 된다.

> 병준은 지금도 발갛게 불이 비치는 자기 집을 향해 언덕길을 더듬어 내려오며, 자꾸만 자기만이 억울하게 괄시를 받고 있는 것같이 생각되는 것이었다. 나는 괄시를 받기 위해 사는 것일까. 도랑을 건너며 생각한다.[36]

> 달빛에 문창이 훤한 날밤 같은 때, 병준은 소변을 보러 일어나다가 가슴이 서늘해지는 것이다. 그 무지하게 큰 머리를 우

35) 손창섭, 「피해자」, 위의 책, 122면.
36) 위의 책, 125면.

뚝 들고 방 한가운데 달영이가 버티고 앉아 있기 때문이다. 그게 달영인 줄 얼른 깨닫고도 병준은 왜 그런지 자꾸만 속이 떨렸다. 세상 일이란 모두가 자기에게 박해를 가하기 위해서만 꾸며진 것같이 생각되는 것이다. 이러한 세상을 무사히 살아나간다는 일이 애당초 무리한 짓이라고 느껴지기도 했다.[37]

병준은 벌써 자기가 죽어서 딴 세상에 온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자 얼핏 병준은 죽을 때 아내가 장인이나 그 밖에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밀린 월급을 받아다 주지 못하고 온 것은 벗을 수 없는 대죄라고 생각하는 것이었다.[38]

이 소설에서 병준은 사실 장인이나 아내, 혹은 월급을 주지 않는 사장에 의해 피해를 받는 처지임에도, 자신이 오히려 죄의식을 먼저 가진다는 점에서 아이러니한 인물이다. 제목은 작가의 시점을 보여주며, 작품은 오롯이 병준의 시선으로 초점화된 사건 서술이 이어진다는 점, 그리고 이 제목과 작품 속 초점화의 시선이 정반대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반어적 성격이 부각된다.

단지 돈을 벌어오기 위한 수단으로 선택된 결혼은 병준을 철저히 약자의 입장에 놓이게 한다. 사실 첫 만남부터 병준은 장인에게 완벽히 지배당한 터였다. 따라서 그가 도달하게 되는 죄의식은 억울하다고 느끼던 '박해의식'이 개인의 내면을 완전히 잠식한 형태, 즉 박해 당한다는 억울함의 항변조차 하지 못할 정도로 체념이 심화된 상태일 뿐이다. 원치 않는 결혼과 가족 제도로의 편입이 주는 폭력성은 한 개인을 과도하고 기이한 죄의식을 수용하도록 만든 것이다.

「생활적」(1953)에서 모든 생활에의 욕구를 무의미한 것으로 여기는 동주가 겪게 된 우물물 에피소드 역시 이러한 약자의 죄의식이

37) 위의 책, 131-132면.
38) 위의 책, 135면.

방향을 전환한 공격본능으로 드러나는 순간을 잘 포착하고 있다.[39] 동주는 범바위 우물의 거센 아낙네들에게 밀려 물을 긷지 못하고 쌍나무 우물에서 물을 긷는 형편인데, 하루는 범바위 우물에 누군가 오물을 퍼부었다고 하여 그 범인을 동주라 지목한다. 그들이 범인을 동주로 지목한 이유는 목격한 사실이나 뚜렷한 정황이 있어서가 아니다. 단지 자신들에 의해 동주가 물 한 번 제대로 못 긷고 괄시를 받아왔으니 응당 반감을 품었을 것이고, 그 반감 때문에 몹쓸 짓을 했을 것이라는 상상적 추론에 의거한 것이었다. 이 부분은 살기 위해 아귀다툼을 하는 인간들이 가질 수 있는 은밀한 원한의 심리를 타인이 가졌을 것이라 상상하는 것으로서, 자신들의 죄의식이 외부에 대한 또다른 공격본능으로 방향을 전환한 형태를 작가가 포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 그러나 동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샘터에 모이는 여인네들은 자기를 빙충이거나 정신병자로 여겼을지도 모른다고 동주는 생각하는 것이다. 게다가 물 한번 제대로 못 긷고 줄곧 괄시만 받아왔으니 응당 반감을 품고 있으리라고 믿고 있을 것이다. 그랬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그런 짓을 할 수 있는 가장 가능한 인물로 동주를 먼저 의심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일 것이다. 억센 사투리를 쓰는 아주머니들은 우물에 똥을 퍼다 넣은 사람이 틀림없이 동주라고 믿고 있을 것이다.[40]

동주가 의심을 받은 이유는 무리로부터 소외된 약자를 향한 다수의 공격본능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 공격본능은 자신들의 행위가 정

39) 우물물 에피소드를 계기로 '군중'이 결속하며 동주라는 개별자에게 집단의 형상으로 폭력을 가하게 된다는 것, 그리고 이러한 장면이 전후사회 폭력의 양태를 고스란히 축약해서 보여준다는 견해도 있다. (조명기, 「손창섭의 「생활적」에 나타난 전후의식」, 이호규 엮음, 앞의 책, 232-236면.)

40) 손창섭, 「생활적」, 위의 책, 116면.

당하지 않다는 마음 한 켠의 불편함, 즉 죄의식과 짝을 이루는 것이기도 했다. 동주가 자신이 하지도 않은 행위에 대해 변명조차 하지 않은 것은 물론 모든 것이 될 대로 되라는 식의 나태와 무의미에 침잠하는 성격적 원인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들 내면의 죄의식과 불편한 감정이 깊을수록 그것을 상쇄하기 위한 자신들의 추론에 대한 확신 역시 강해질 것이라는 엄연한 사실을 깨닫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41]

이처럼 「피해자」, 「혈서」, 「생활적」의 인물들이 느끼는 죄의식은 그들이 죄를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스스로 과도하게 갖게 되는 것이거나, 혹은 죄를 짓지 않은 자에게 자신의 죄의식을 역으로 투사한 공격성의 형태로 이뤄지는 것으로서, 공통적으로 인물들의 삶을 한층 더 피폐한 것으로 옭아매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이들의 죄의식이 각각 '결혼', '취직', '병역의 의무' '(우물을 공유하는) 공동체 생활'과 같은 집단적 생활 내에서의 개인의 역할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형성된 것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한 개인에게 부당한 죄의식을 심어 주어 그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주체로서의 '사회'나 '집단'의 폭력에 대한 은밀한 반감이 인물들의 과도하고도 희극적인 죄의식을 그려내는 필치 아래 녹아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양심'과 '양심의 가책'을 엄격하게 구분하고 도덕의 개념을 재서술하고자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계약론적 사회 형성이 가져온 잘못된 도덕 관념을 타파하고자 한 니체의 시도를 떠올릴 수 있다. 「도덕의 계보」 〈제2논문〉에서는 죄와 양심, 양심의 가책의 기원과 형벌의 역사에 대해 찾아볼 수 있다. 니체는 〈제1논문〉에서 좋음과 나쁨의 기준이 타인이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자, 원한이라는 노예도덕에 사로잡히지 않고 망각을 통해, 그리고 자신

41) 이처럼 다수의 사람들에 의해 오해받는 개인이라는 모티프는 이후 「고독한 영웅」(1958)의 주인공 차인구가 처한 상황으로도 이어진다.

과 '행위'와 '활동'을 통해서만 삶을 살아가는 자를 '강한 자'이자 '선한 자'라 이른다. 이러한 맥락의 연속선상에서 〈제2논문〉에서는 자신의 의지와 관념에 대한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고, 이를 토대로 미래의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도 예측할 수 있는 '책임'을 가진 것, 이 강한 인간 특유의 책임의식을 '양심'이라 명명한다.[42] 이 역시 자기 자신의 관념과 행동에 대한 책임이라는, 타인이 아닌 '자기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도덕의 원천을 전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1논문〉의 논지와 연속된다.

그런데 이와는 다른 결의 '양심의 가책'은 부채(Schulden)라는 개념과 밀접하게 연관된 죄(Schuld)의 개념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빚을 지고 있는 타인에게 가지게 되는 응분의 감정이 죄의식이며, 이와 관련하여 채권자-채무자가 동의하는 계약적 관계 하에서 발생한 물질적 손해와 같은 것으로 죄를 인식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계약론적 관계에서의 '정의'란 동등한 힘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 서로 타협하고 조정하려는 의지에 불과하다.[43] 이 점에서 양심의 가책이란 전적으로 원한에 사로잡힌 인간이 발명해 낸 것이다. 고귀하고 강한 자는 자신이 당한 손해쯤을 쉽게 망각해 버리는 '자비'를 베풀 수 있고, 그것이 강자의 도덕이 되지만, 약자는 자신이 당한 손해를 두고 두고 기억하면서 그것을 갚도록 하는 양심의 가책을 중요시 여긴다. 흔히 사람들은 죄에 대한 형벌이 죄인의 양심의 가책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믿지만, 니체가 보기에 오히려 그것은 죄에 대한 무감각과 소외의 감정만을 불러일으키고 일정한 방향으로 행동을 통제하도록 길들일 뿐, 그것이 전적으로 반성이나 양심의 가책을 전혀 불러일으킬 수는 없는 것이다.

---

42) 프리드리히 니체, 「도덕의 계보」 제 2논문, 김정현 옮김, 『선악의 저편/도덕의 계보』, 책세상, 2002, 399면.

43) 위의 책, 413면.

따라서 양심의 가책은 인간이 사회와 평화에 길들여짐을 알았을 때 억압해야만 하는 동물적 본능과 공격성, 강자의 고귀한 공격적 본능을 자신의 내면으로 돌린 결과에 불과하다. "적의, 잔인함과 박해, 습격이나 변혁이나 파괴에 대한 쾌감-그러한 본능을 소유한 자에게서 이 모든 것이 스스로에게 방향을 돌리는 것"이 양심의 가책의 기원이라는 것이다.[44] 그리고 이러한 공격본능의 내면화는 인류에게 병처럼 작용하여 자기 자신에 대한 고통, 영원히 죄의식과 불행이 끝나지 않으리라는 절망으로까지 이어지게 된다.[45]

원한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양심의 가책과는 다른 자리에 놓인 것이 '국가'로 표상되는 자연 상태의 폭력을 당한 인간이 내밀하게 가지게 되는 자유의 본능으로서의 양심의 가책이다. 루소 식의 계약으로부터 탄생한 국가가 아닌, 홉스 식의 폭력적 자연 상태를 제압하는 더 큰 폭력으로서의 국가와 같은 것이 사람들을 지배할 때, 아무런 이유 없고 원인 없는 그 폭력 상태에 마주한 인간은 "억눌리고 뒤로 물러나고 내면세계로 유폐되어 마침내 오직 자기 자신에게만" 자유의 본능을 발산하게 된다.[46] 니체는 이것을 진정한 양심의 가책의 시작이라 본다. 즉 이것도 니체 식의 자유 본능, 즉 힘에의 의지의 한 변형태인 것이다.[47] 이는 니체가 루소 식의 계약론적 국가가 아닌, 홉스 식의 리바이어던을 전제하는 구도 위에서 강자 도덕의 변형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자신의 출생의 정당성에 대해 의문을 품고 살아가는, 현실에 굳건히 뿌리박지 못했다는 작가 자신의 불안감은 초기소설에서부터 자기처벌의 요구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죄의식을 반복적으로 그리는

44) 위의 책, 432면.
45) 위의 책, 같은 면.
46) 위의 책, 435면.
47) 위의 책, 같은 면.

작업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동시에 초기소설에서의 '죄의식'은 손창섭에게 있어 집단을 이루어 살 수밖에 없는 인간 삶에 있어 약자가 보이는 병리적 현상의 대표적 사례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삶의 무의미에 대한 천착이라는 정신적 '불구'나, 육체적 '불구'를 묘사한 것만이 아니라, 인물들이 보이는 병적인 죄의식이 약자의 존재론을 드러내는 방식, 세계의 병리성을 드러내는 주요한 방식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4. 주권적 개인의 존재성과 부패에 대한 저항

「미해결의 장」(1955), 「사제한」(1956), 「고독한 영웅」(1958) 등에서 손창섭이 그린 1950년대 한국 사회는 정당하고 합법적 절차가 아닌 연줄과 인맥에 의해 모든 재화와 지위의 분배가 이루어지는 사회였다.[48] 1955년부터 손창섭 소설에서 인습적 도덕에 대한 비판, 부정부패에 대한 주목, 영어가 새로운 권력어로서 자리매김하는 현실에 대한 균열적 시선 등 공적 영역에 대한 발화가 증가하고 있음에 주목하는 연구들은 최근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손창섭은 이러한 사회적 부조리에 정면으로 부딪치며 대항해 나가며 자신의 힘에의 의지를 실현하는 고집스러운 인물형을 그리거나 혹은 약자들의 양심의 가책과 대비되는 자리에 놓인 진정한 '양심'을 갖춘 인물형을 창조해 내고자 한다.

「인간동물원초」(1955)에서 감옥 안 세상은 철저하게 약육강식의 논리로 지배되며, 사회적 관습이나 도덕의식은 자취를 찾아볼 수 없

48) 방민호는 1960년대 장편소설이 주로 한국사회 각계각층에 침습되어 있는 부정부패로 요약되는 "추잡한 현실"에 대한 비판의식을 견지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다.; 방민호, 「손창섭 소설의 외부성」, 앞의 글, 206면.

는 곳이다. 징역을 가장 오래 산 방장이 절대적인 권력을 휘두르는 것이나, 방장이나 주사장의 욕구에 무조건 맞춰주어야 하는 양담배나 핑핑이의 처지가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들은 감옥이라는 통제 공간에서 인간 본연의 동물적 욕망을 누르지 못한 채 이를 둘러싼 치열한 아귀다툼을 벌인다.

이 소설에서 공간적 배경으로서의 감옥은 그대로 인간이 사는 사회, 공동체의 논리로도 확장시켜 볼 수 있다. 이 때 서사적 상황의 처음과 마무리를 장식하며 두드러지는 존재감을 보이는 인물은 냉소적인 태도로 때로는 경멸적인 시선으로 감옥 안 아귀다툼을 바라보는 통역관이다. 그는 물리적으로는 감옥 안에 위치하면서도 감옥 안 살벌한 역학관계의 자장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관찰자' 겸 '방조자'이다.

> 아무 눈에나 창살 사이로 쳐다보이는 것은 역시 나무 없는 산등성이와 그 너머의 푸른 하늘인 것이다. 그러나 끝끝내 통역관만은 창밖을 내다보지 않고 앉아 있는 것이다. 그는 언제나 처럼 남을 깔보는 것 같은 눈으로 싱글싱글 웃으며 사람들을 바라보고 앉아 있는 것이다. (중략)
> "모두들 푸른 하늘이, 저 드높은 하늘이, 그리운 게지! 저 하늘을 차지하고 싶거든 용감해져야 합니다. 강해져야 한단 말입니다."[49]

> 그런 가운데서 아무래도 통역관만은 달랐다. 깔보는 것 같은 웃음을 담은 눈으로, 방장과 주사장의 부어오른 태도를 암만이구 오래 지켜보고 있는 것이다. 그러다가 마치 결론이라도 내리듯이 그는 또 엉뚱한 소리를 들려주는 것이다.
> "살아 있는 사람이란 늘 싸워야 하는 거요. 싸울 줄 모르는 인간은 송장이요. 그러나 반드시 저보다 강대한 적과 싸우는

49) 손창섭, 「인간동물원초」, 『손창섭 단편전집 1』, 가람기획, 2005, 224-225면.

> 싸움만이 신성합니다. 약자끼리의 싸움이란 언제나 강자를 위한 자멸입니다."
>
> 양담배는 무슨 뜻인지 잘 알 수 없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그 말 속에는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요긴한 뜻이 들어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방장일지라도 몰래 벼르기만 할 뿐, 감히 통역관은 어쩌지 못하는 것이리라.[50]

아귀다툼을 행하는 사람들 틈에서 홀로 자유를 상징하는 하늘을 바라보지 않고 있는 통역관은 단지 다른 사람들을 "깔보는 것 같은 웃음을 담은 눈"으로 바라보며 힘에 대해 이야기할 뿐이다. 특히 '약자끼리의 싸움'을 경멸하는 듯한 두 번째 발화는 니체가 말한 자기 상승 욕구의 방향성과도 연결된다. 진화론이나 니체 모두 생존을 위한 싸움을 필연적인 것으로 여긴다. 단 다위니즘에서는 이것이 유적 생명의 존속에 중요한 기제이기 때문에 필수적인 것이고, 니체는 "생명체의 싸움이 자기보존의 목적을 넘어선, 힘의 상승을 통한 자기 상승을 목적으로 하"기에 중요하다고 본다.[51] 인간에게 싸움은 필수적이되, 반드시 자기보다 힘이 강한 자를 대상으로 싸워야 한다는 말은 이와 같은 개체의 자기 상승 욕구를 긍정하는 언술로 읽힌다. '하늘을 차지할 수 있을 정도로 강한 자'는 이러한 자기 상승의 과제를 완수한 상태에 놓인 사람일 것이다. 물론 소설 속에서 통역관의 말은 상황을 조망하는 해석일 뿐이며, 실제 그려지는 감옥 안 세상은 '동물'의 그것과 다르지 않다. "사람은 짐승과 위버멘쉬 사이를 잇는 밧줄"이라 했듯, 작가는 인간이 지닌 동물성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며 조절되고 승화되지 않는 개체 내면의 '힘'과 외부 세계와의 대결 본능을 그려내고 있는 것이다.[52]

---

50) 위의 책, 237면.

51) 백승영, 『니체, 디오니소스적 긍정의 철학』, 263면.

52) 이 점에서 동물로서의 인간의 측면을 파악한 작가의 눈을 개성적인 것으로 고평했던 유종호의 언급을 참조해 볼 수 있다. 동물로서의 인간을 있는 그대로 그려

이 발화를 매개로 해석해 보면, 주사장과 방장의 성욕과 그를 둘러싼 다툼은 '약자끼리의 싸움'에 불과할 뿐이다. 여기서 그가 말하는 '강자'가 뜻하는 바는 작품 내에서 명료하게 드러나 있지는 않다. 그러나 '통역관'이 상징하는 바와 감옥 속 공간이 한국 사회의 현실로 유비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에 둔다면, '약자-강자'의 구분은 또다른 의미망의 차원으로 해석될 수 있다. 우선 작가는 「신의 희작」에서 주인공 S가 미군 부대 통역관을 넘겨받은 죄로 1년을 언도받고 감옥에서 있었던 경험을 서술하도록 하고 있다. 또 「미해결의 장」에서 영어를 배우고 미국에 다녀오기만 하면 고위관직은 따놓은 당상이라는 '대장'의 말을 통해 언어권력과 현실 권력이 밀접하게 결탁하며 부정부패가 발생하던 당시의 사회상을 비교적 전면화하여 그려내고 있기도 하다.[53] 실제로 당시 통역관의 존재가 식민지 시기에는 조선인에게 제한되었던 고위 관직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막강한 권력이었다는 점, 또 귀속재산 불하 문제가 행정적으로 정돈된 절차 내에서 진행되지 않아 통역관들의 부정 부패가 극심했다는 점에 대한 언술을 참고한다면,[54] 「인간동물원초」에서 감옥 안 역학관계에서 홀로 자유로우며 다른 사람들을 "깔보는 웃음을 담은 듯한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통역관의 존재는 문제적이다. '약자끼리의 싸움'은 힘이 없고 생존의 능력이 없는 하층민들의 삶을 지칭하고, '강자와의 싸움'은 이러한 현실 속 권력와 힘을 지닌 존재

내는 작가의식 뒤에는 인간에 대한 혐오와 모멸의 시선이 전제되어 있다고 파악하고 있다. (유종호, 앞의 글, 21면.)

53) 이중언어 사용자의 정체성을 기반으로 언어권력에의 비판적 시선을 확보할 수 있었던 손창섭 소설의 여러 양상들 (실어증 및 의도적 침묵, 혼종적 발화)에 대한 분석으로는 한수영, 「식민화된 주체와 언어적 타자의 위치-손창섭」, 『전후문학을 다시 읽는다』, 소명출판, 2015, 273-304면.

54) 안진, 『미군정과 한국의 민주주의』, 한울아카데미, 2005, 164-165면.; 박소영, 「미군정기 통역정치: 이묘묵을 중심으로」, 『통번역학연구』 Vol.23, No.2, 한국외국어대학교 통역번역연구소, 2019, 102-103면.

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래 니체의 자기 상승욕구가 반드시 외부의 타자를 전제로 하지 않은 내면의 자기초월과 욕망의 긍정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손창섭은 이와는 다른 층위에서 니체적 경구를 통역관의 발화에 표면적으로 삽입하며 지배-피지배 관계의 부조리함과 모순을 우회적으로 비판하는 언술로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외부의 관습이나 거역하기 힘든 힘에 대해 '고집'으로 버티며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키려는 인물형이 등장하는 소설로 「저어」(1955), 「고독한 영웅」(1958)이 있다. 이러한 인물형의 등장은 '긍정적 인물의 주조'를 주문하는 비평가들의 요구에 대한 응답, 『사상계』와의 접촉과 관련 담론의 영향 등으로 해석된 바 있다.[55] 자신 이외의 모든 것들을 적으로 돌리며 고독하게 항거하는 이러한 인물들은 '외부자적 인물형'으로 지칭되기도 하였는데,[56] 이러한 인물형을 창조할 수 있었던 바탕에는 외부의 저항에 따라 자신의 욕망을 실현시키는 정도를 진정한 힘에의 의지로 보았던, 그리고 이것을 존재론적 완성을 실현한 초인이 갖추어야 할 조건으로 내세웠던 니체적 영향이 짙게 드리워져 있다.

제일 먼저 외곬수의 '고집'이 현실과 부딪쳐 깨지는 자리를 보여주는 소설이 「저어((齟齬)」(1955)이다. 관혼상제를 비롯한 인간 사회의 모든 관습을 경멸하며 적극적으로 부정하는 광호의 심리가 기실은 어린 시절 고아로 길러지며 모든 사회적 관습으로부터 소외당했던 기억에 기인함을 드러내고 있다. 그 어린 시절의 흔적은 쉽게 사라지지 않아, 그는 정이마저도 한없는 애정으로 대하는 것이 아닌

55) 김진기, 「손창섭 소설과 『사상계』」, 『한국언어문학』 84집, 한국언어문학회, 2013, 333-349면 참조

56) 「잉여인간」의 채익준, 「고독한 영웅」의 차인구를 '외부자적 인물형'으로 해석하고 있는 연구로는 김진기, 「1950년대 손창섭 소설의 현실지향성 연구」, 앞의 글.

마음 통하는 벗 정도의 가벼운 의미로 대하고 있다. 그런 까닭에 정이와의 결혼을 조건을 이유로 반대하는 백부의 의견을 물리치고, 또 결혼식이 구색을 갖추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일말의 타협도 보이지 않는 것이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스스로 의지할 곳 없는 세상을 살아오는 원동력이었던 자신의 고집과 운명에 대한 책임감이었다. 그리고 설사 그것 때문에 정이를 잃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이미 그의 삶 자체를 전체적으로 지배하는 그림자와 같은 것이라 그 원칙을 포기할 수 없다. 그 원칙은 이미 광호와 그의 삶 자체가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연으로 인해 결국 정이와 파혼할 수밖에 없는 순간이 틀어져서 어긋난다는 뜻의 제목 '저어'에 드러나 있다.

그리고 이 소설에서 운명과 환경의 관계, 운명을 개척해야 할 필요성 등의 수사는 이러한 광호의 성격적 특성과 특수한 삶의 환경으로부터 형성된 독특한 의견의 축약본이다. 광호는 인간의 운명이 환경에 지배당할지라도 책임을 본인이 지게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할 것을 강조한다. 이러한 논리에 따르면, 그 자신이 정이와 파혼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릴지라도 스스로의 고집을 지켜나가는 것을 일종의 자신의 운명에 대한 책임으로 여기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 (전략-인용자 주) 언제나 한 인간의 운명은 주위 환경에 지배당하지만 그 책임은 어쩔 수 없이 본인이 지게 된다는 냉엄한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운명은 마침내 우리의 등에 지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의사만이 우리 자신의 문제를 결정 지을 특권을 갖는 것입니다. 정이 씨의 마음이 다소 동요하기 시작했다고 나는 보는데 그래선 안 됩니다. 좀더 강해지란 말입니다."[57]

57) 손창섭, 「저어(齟齬)」, 『손창섭 단편전집 1』, 가람기획, 2005, 207면.

> 일방 그렇다고 해서 자기의 주장을 추호도 굽히고 싶지는 않은 것이다. 오늘날까지 자기 인생의 지주는 따지고 보면 그 고집이었을지 모른다. 고집 말고 자기에게 도대체 무엇이 있느냐 말이다. 그것은 유일한 그의 밑천이기도 한 것이다. 그 고집이 꺾이는 날, 광호는 자기의 중심이 송두리째 뽀혀 유실당할 것 같은 불안감조차 느끼는 것이다. 동시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정이의 모친과 같이 그렇게 선량하고 온화한, 한 인간의 심령에 가실 수 없는 상처를 주면서까지 강행할 만큼 자신의 결혼이 중대한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 것이었다. 그러구 보면 결국 파혼하는 길밖에 도리가 없지 않으냐?[58]

이 점에서 광호의 운명애, 더 나아가 손창섭이 그려내고 있는 인물의 운명애란 필연적으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어긋나게 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잃지 않기 위해 필사적으로 붙잡아야만 하는 어떤 것이다. 이 때 파혼이 정이에게 있어 남길 상처는 여기서 고려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비도덕적'인 것으로 그려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자신의 신념과 고집을 지키기 위한 것은 마치 사람들이 '이타적'이거나 '희생적' 행위로 칭송하는 것과 동일한 정도의 도덕적 가치를 지닌 것이다.

니체는 도덕을 일종의 '자기 분할(증여)'로 말한다. 이에 따르면 '비이기적인 것'이 선한 것이고, '이기적인 것'은 악한 것이라는 통념적 도덕은 다시 이야기되어야 한다. 가령 자신의 일에 애정을 가진 작가가 다른 이로 하여금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도록 열망하는 것, 사랑에 빠진 소녀가 연인의 부정을 통해 역설적으로 자신의 사랑의 크기를 증명하고자 원하는 것, 군인이 조국의 승리를 위해 전쟁터에서 쓰러지기를 원하는 것, 어머니가 자신의 건강과 재산을 모두 자식에게 주기를 원하는 것, 이런 것들을 모두 비이기심에서 나온 숭고한 도덕적 행위로 평가하는 것에 대해 니체는 의문을 표한다. 오

58) 위의 책, 220면.

히려 이러한 행위들은 자신의 존재를 어떤 식으로든 "분할하는" 행위이며, 그 분할을 극한으로 몰고 나가려는 행동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희생적 행위는 어떤 고집 센 사람이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 타인에게 한 치의 타협과 양보도 허용하지 않는 상황과 본질적으로 같은 것이다. 즉 "애착을 갖는 것은 어떤 결과를 초래하든 비이기적이지 않다"는 것이다.[59]

이러한 논리에 따르면, 광호가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 파혼을 선언하는 것은 그 자체로 애착의 결과이기 때문에 비이기적인 것이며, 자기의 가치에 충실한 행위라는 점에서 도덕적인 것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다. 손창섭은 굳건한 사회적 관습과 갈등을 일으키면서까지 자신의 신념과 고집을 지켜내려는 인물의 내적 논리를 위와 같은 니체적 사유의 토대에 의거하여 그려내 보고 있는 것이다.

「고독한 영웅」(1958)의 차인구는 인간이 본원적으로 가지는 힘에의 의지의 발현이 금력이나 권력과 같은 현실 사회의 가치와 충돌해 나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인물이다. 그는 지방 유지이자 힘이 있는 전기택의 아들이자 자신이 재직하는 학교 학생인 전부권(富權)을 교육하려 하다가 그를 구타했다는 오해를 받게 된다. 교장, 장학사들, 그리고 인구를 학교에 소개한 윤국장이나 형은 전기택의 재산과 권력의 힘을 두려워하며 사건의 전말을 제대로 알아보려 하지도 않고 그에게 사과를 강요한다. 이 과정에서 자신이 사과를 할 이유가 없으며, 자신에 대한 믿음을 키워나가는 인구의 점진적인 심리 묘사가 주목된다.[60] 그는 권력이나 금력을 두려워하는 주변 인물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그 반작용으로 자신의 입장이 옳음을 재확인하

59) 프리드리히 니체, 김미기 옮김,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1』, 책세상, 2001, 85면.

60) "인구(仁九)는 아무것도 겁나지 않았다. 도리어 자기에게 가해지는 왼갖 압박을 거연히 물리칠 수 있는 자신에 대해서 도취에 가까운 흥분조차 의식하는 것이었다." : 손창섭, 「고독한 영웅」, 『현대문학』, 1958.1, 102면.

며, 더불어 그 입장을 꿋꿋이 주장할 수 있는 내면의 힘에 대해 만족감을 느끼게 된다. 한편으로 그 만족감은 「잡초의 의지」의 유 선생이 말한, '고독'을 필연적으로 수반해야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61] 그는 곳곳에서 쉽게 사회적 가치와 타협하여 자신을 속이지 않았다는 만족감을 숨기지 않는다.

> 『조금도 저는 오만 불손한 맘으로 교장 선생님을 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저도 인제는 믿는데가 있어서 바른대로 저 자신을 주장하구 내세울 수가 있을 뿐입니다.』
> 『뭐, 뭐라구요. 대체 차선생 따위가 뭘 믿구 그리 큰 소릴 치는거요.』
> 『저는 먼저 저 자신을 믿습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도달한 비장한 각오를 믿는단 말씀입니다. 교장 선생님처럼 금력이나 권력만을 믿는 일에 저는 그만 지쳐 버렸습니다.』[62]

니체는 강자, 주권적 개인, 귀족적 개인이 갖추어야 할 진정한 '자유'를 자유주의적 제도와 구별한다. 그에 따르면 자유란 "극복되어야 할 저항에 의해서 위에 머무르기 위해서 치르는 노력에 의해서" 규정되는 것이며, 따라서 "최고로 자유로운 인간 유형은 최고의 저항이 끊임없이 극복되는 곳에서 발견될 수 있을 것"이다. 즉 자신의 행동 원리에 따라 흔들림 없이 행위하며, 더 나아가 외부적 저항이 거셀수록 그에 대항하는 자유의 능력 역시 커지게 되고, 이것이 또 다시 강자이자 주권적 개인의 존재성을 입증하게 된다.[63]

---

61) "인구는 보도(寶刀)를 소중히 꺼내 보듯이 이제까지의 각오를 또 한 번 마음 속으로 되씹어 보며 걸었다. 교장이나 도,시에서 나온 관리들처럼 금력이나 권력이라는 남의 장단에만 춤을 추며 자기를 잃고 싶지는 않았다. 그렇다고 형이나 윤국장처럼 위신이나 체면이라는 곰팡이 속에 칩거하며 자신을 위장하고 싶지도 않았다. 거기에 고독이 있었다." : 위의 글, 103면.

62) 위의 글, 95면.

63) 프리드리히 니체, 백승영 옮김, 「우상의 황혼」, 『바그너의 경우 외』, 책세상,

이러한 사유의 틀이 이 작품에서 빛을 발하는 것은 그가 교장, 장학사, 교육계 관리로 이어지는 현실적 권력과 힘의 부패를 강조하면서 보여줄 수 있는 대립항으로서 설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들은 일의 선후전말이 어찌 되었는지의 여부를 먼저 따져보려 하지 않는다. 자신의 이득을 위해 눈감을 때는 눈을 감으라는 협박 겸 회유의 처세술을 강요하는 이들의 동일한 논리는 당시 사회에서 영향력 있는 인물들이 가진 공통적인 의식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 된다. 그리고 인구가 그 외부적 권력에 순응하지 않고 자신의 내면의 힘에 대한 감각을 더욱 키워나갈수록, 상대적으로 이 부패의 정도는 더욱 강조되는 효과를 낳는다. 즉 니체적 용어로 '주권적 개인의 존재성'이 인구의 다짐이라는 형태로 부각될수록, 상대적으로 이와 대립지점에 있는 현실적 권력과 힘에 순응하는 것이 자신의 생존을 도모하는 가장 '편한' 방식이라는 약자의 무리본능 역시 함께 강조되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손창섭은 당시 한국사회의 부패 문제를 학교라는 공간을 축도로 삼아 이야기하고 있다.

이와 같은 강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자유에 대한 개념은 1960년대에 들어서게 되면 부패한 사회에서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최후의 보루로서의 인간적 가치 지향이라는 주제로 변모하게 된다.[64]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신문 연재 장편소설 『길』(1969)이다. 『길』에서 서울에 적응하려는 시골 출신 주인공 최성칠의 성장에 주요한 조력자의 역할을 하는 신명약국 주인의 말 중, 사르트르나 니체의 경구는 돈에 대한 세속적 욕망을 스스로 제어하고 인격완성을

2002, 177-178면.

64) 『길』의 주인공 최성칠이 도덕적이며 동시에 강인한 생활력을 갖춘 인물로 설정된 것과 자본주의적 이념형을 강력하게 긍정하는 서술 태도를 보인다는 언급과도 연결된다. (이동하, 「손창섭의 『길』에 대한 한 고찰」, 이호규 엮음, 앞의 책, 367-397면.) 이 주제의식 내에서 니체의 경구는 도덕성과 체제 내 생활력이라는, 당시의 부패된 사회상 내에서는 양립하기 어려워 보이는 두 요소를 연결 짓는 계몽적 언술로서 활용된다.

할 것을 주문하는 데 쓰이는 부분적 근거로 사용된다.[65] 「고독한 영웅」이 외부의 강요에 대결해 가는 주인공 차인구의 내면적 힘에 대한 인식이 면밀하게 묘사되고 있는데 반해, 『길』에서 신명약국 주인이 인용하는 니체는 똑같이 금력이나 권력에 굴복하지 말 것을 말하는 것이긴 하지만, '인격 완성'이나 '수양'과 같은 도덕 용어로 치환되어 있어 그 서사적 긴장성은 다소 떨어지게 된다. 즉 「고독한 영웅」이 보여주는 개인의 내면적 힘과 의지의 건강성이라는 주제가 『길』에서는 축소된 채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잉여인간」(1958)에서도 부패와 이에 물들지 않는 양심적 인간형의 대립이 나타난다. 이 소설에서는 채익준의 시선으로 부패한 사회의 타락상이 세세하게 고발되고 있다. 그가 유해물질을 넣어 외국제 고급약으로 탈바꿈시킨 제약 회사에 대해 분노를 폭발시키는 장면, 이전 노동판에서 일할 때도 사무실에서 인부들의 임금을 속이는 줄을 알게 되자 주먹다짐을 벌이고 그만 두었다는 사실, 외국 선교사 상대 양심적 상점이 없다는 것, 장사를 양심이나 신용이 아니라 철두철미하게 자신이 벌어들일 이득의 양만을 고려하는 계

65) (전략-인용자) 그러니까 덮어놓고 큰 부자가 되거나 권세를 잡으려고 날뛸 것이 아니라, 먼저 자신의 인간 완성에 힘써야 하는 거다. 불란서의 소설가이며 철학자인 사르트르는, 인간은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드는 거란 말을 했어, 바로 그거야. 사람이란 자기만을 위한 무엇에 욕심을 내기 전에, 먼저 자신을 쓸모 있는 인간으로 만들기 위해 애써야 해. 네게 권하고 싶은 말도 그거다." : 손창섭, 『길』, 북갤럽, 2002, 475면.
"사람의 욕심은 한이 없는 거다. 십만 원 벌고 나면 이십만 원을, 이십만 원이 생기면 오십만 원을, 오십만 원이 되면 백만 원을 탐내는 것이 욕심 많은 인간의 심리다. 돈뿐 아니라, 지위와 권력을 노리는 출세길도 마찬가지지. 그러한 욕망에서 인간은 타락하는 거다. 그러니까 사람이란 자신의 욕망을 억제할 줄 알아야 한다. 그 힘은 수양에서 오는 거다. 그러기에 돈이 많거나 권력이 센 사람보다 수양을 많이 쌓은 사람이 훌륭하고 무서운 거다. 독일의 철학자 니체는, 보다 적게 소유한 자는 보다 적게 지배받는다고 했다. 그러니까 권력이든, 재물이든, 지식이든, 덮어놓고 많이만 소유하는 게 능사가 아니다. 왜 소유해야 하느냐가 중요한 거다." : 위의 책, 484면.

산속으로 여기는 세태 등에 대한 언급 등이 이에 해당된다.

> 이를테면 소매치기나 날치기에서부터 간상 모리배도 총살, 협잡 사기한도 총살, 뇌물을 먹고 부정을 묵인해주는 관리도 총살, 밀수범도 총살, 군용 물자를 훔쳐 내다 팔아먹은 자도 총살, 국고금을 횡령해 먹은 공무원도 총살, 아무튼 이런 식으로 부정 불법을 자각하면서도 사리사욕에 눈이 멀어서 국가 사회에 해독을 끼치는 행위를 자행하는 대부분의 형사범은 모조리 총살해버려야 한다는 것이다.66)

한국이 '도둑의 나라'라는 외국 기자의 말에 강력하게 동의하는 채익준과 이러한 그의 견해에 슬쩍 반박해 보는 서만기의 대화에 이어 그려지는 것은 서만기의 양심적 태도이다. 서만기도 자신의 식구와 전쟁통에 육체적, 정신적 불구가 된 친구들, 또 처가 식구들까지 묵묵히 책임지며 고된 삶을 감내하는 긍정적 인물이다. 그리고 그는 인숙이 그에게 이야기하기를 청했을 때 "석 달치나 밀린 급료 얘기가 아닌가 싶어" "새삼스레 가책을 느"낄 정도로 양심적인 인물이다. 또 여자들의 사랑을 알고 때로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더라도 아내에 대한 신뢰와 사랑 때문에 이 흔들림이 없어져 버리는 깨끗한 인물이기도 하다. 병원을 비워주어야 할 위기에 시달리면서도 인숙이 베푸는 호의를 받기 어려워 혹은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해 물리치는 모습에서도 정직하게 자신의 힘으로 삶을 살아나가야 한다는 기본적 원칙을 깊이 새기고 있는 인물임을 짐작할 수 있다.

즉 당시 부패한 세태를 대표하는 인물의 대척점에 놓인 인물로서 서만기의 긍정성은 그가 '양심'을 지니고 있으며 그것을 더럽히지 않으려는 끈질긴 노력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 있다. 이 점이 도의교육 제정 등 모범적 시민과 인간을 양성하려는 지배담론의 영향을 어

66) 손창섭, 「잉여인간」, 『손창섭 단편전집 2』, 가람기획, 2005, 113면.

느 정도 수용한 것임을 부인할 수 없지만,[67] 스스로의 인생에 대한 목표와 그것을 감내하려는 내적인 의지와 다짐이라는 보다 내밀한 실존적 감성과 결합되어 나타나고 있음도 간과할 수는 없다. 가령 다음과 같은 인용문은 그의 인생관을 축약해서 보여준다.

> "「장 크리스토프」라는 롤랑의 소설 가운데 이런 말이 있다우. '사람이란 행복하기 위해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니다. 자기의 정해진 길을 가기 위해서 살고 있는 것이다.' 여보, 나를 위해서 진심으로 울어줄 아내가 있는 이상 나는 결코 꺾이지 않을 테요. 그러니까 날 위해 과히 걱정 말구 어서 울음을 그쳐요. 자 어서, 이게 뭐야 언내처럼."[68]

앞서 3장에서 설명한 니체의 약자-강자론 가운데, 약한 자, 원한을 가진 자가 갖게 되는 '양심의 가책'과는 다른 자리에 '양심', 즉 '책임 의식'이 놓임을 살펴본 바 있다. 좋음과 나쁨의 기준이 타인이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자, 원한이라는 노예도덕에 사로잡히지 않고 망각을 통해, 그리고 자신의 행위와 활동을 통해서만 삶을 살아가는 자는 '강한 자'이자 '선한 자'이다. 또 자신의 의지와 관념에 대한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고, 이를 토대로 미래의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도 예측할 수 있는 책임을 가진 것, 이 강한 인간 특유의 책임 의식은 '양심'이다.[69] 즉 책임 의식은 자기 자신의 능동적 활동과 가치 창조로부터 파생되어 나오는 강한 자의 행동 양식인 것이다. 이 점에서 볼 때 "자기의 정해진 길을 가기 위해서 살고 있"

67) 이러한 부분에 대해, 서만기 인물형이 당시 국민윤리강령의 내용을 기반으로 한 '도의교육'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 보는 연구로는 박찬효, 「손창섭 소설에 나타난 남성의 존재론적 변환과 결혼의 회피/ 가정의 수호 양상」, 『상허학보』 42집, 상허학회, 2014, 384-385면.

68) 손창섭, 「잉여인간」, 『손창섭 단편전집 2』, 가람기획, 2005, 121-122면.

69) 프리드리히 니체, 「도덕의 계보」 제 2논문, 김정현 옮김, 『선악의 저편/도덕의 계보』, 책세상, 2002, 399면.

다는 서만기의 삶과 책임은 강자 도덕에 가까운 것으로 읽힐 수 있다.

손창섭이 사회의 여러 영역에 대한 공적 발화를 하는 와중에 가장 빈번하게 드러난 것은 재화나 권력을 가지려는 인간 세계 내의 절차 없는 다툼, 그리고 그로 인해 벌어지는 무질서와 부패의 문제였다. 이러한 세태에 쉽게 물들지 않으려는, 혹은 이를 거슬러 살아가려는 인물들의 의지는 외부의 부패와 타락 정도가 강해짐에 따라 더욱더 고되고 외로운 것일 수밖에 없다. 이들이 실현하는 힘에의 의지는 때로는 '고집'으로, 때로는 '양심'이라는 형태로 다채롭게 드러난다. 그리고 이들의 공통적 토대에는 잘못된 외부의 가치기준을 분명하게 거부하고 스스로 자신의 삶의 자리를 긍정하며 새롭게 가치를 창조해나가는 강자도덕의 지향이 있다.

5. 결론

손창섭의 자전적 소설과 산문에서는 세상에 잘못 태어났다는 죄의식이나 이질감, 그 감정이 외부를 향하여 방향을 돌린 원한 의식이 뫼비우스의 띠처럼 결합된 원체험적 정서구조를 이루고 있는 흔적이 발견된다. 그가 문학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자기 안의 그 비틀린 심리를 초극하고 자신보다 더 불쌍하고 고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바라보고 보듬으며 비로소 그 고된 삶을 긍정하게 된 것과도 밀접하게 관련된다. 비틀린 열등감이 방향을 전환하면서 역으로 자기를 긍정할 수 있는 힘으로 자리잡게 된 것이다. 이러한 개인사적 특수성은 외부와 부딪히며 자신의 삶을 긍정해나가는 니체 식의 힘에의 의지나 고독과 관련된 사유에 깊이 공명하고, 소설 창작 과정 중 인물 창조나 갈등 설정에 특정한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바탕을 마련한 것

으로 보인다.

손창섭은 '죄의식-원한'의 상호교호성에 대한 니체적 통찰을 기반으로 1950년대 전후 무질서한 상태에서 생존을 도모해야 하는 개인이 겪게 되는 집단의 폭력성을 작품 속 언술 속에 내밀하게 기입할 수 있었다. 또 1955년 이후 당시 사회의 부패상을 묘사함에 있어서도 외부의 세태에 물들지 않으려는 고집을 가진 인물, 때로는 양심적인 인물을 니체적 강자상과 겹쳐지도록 그려내고 있다. 행동의 가치기준을 스스로 세우고 외부의 저항에도 흔들림 없이 나아가는 이들 인물형은 역으로 인물의 의지를 방해하는 외부의 부패와 타락상이 얼마나 비루하고 심각한 것이었는가를 강조하는 효과를 낳는다. 그리고 이는 1960년대 손창섭의 장편소설에서 반복되는, 한국사회에 널리 퍼진 위선과 부패에 대한 비판이라는 주제와도 연결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흐름이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1. 일차 자료

손창섭, 『길』, 북갤럽, 2002.

_____, 『손창섭 단편전집1-2』, 가람기획, 2005.

_____, 「나의 작가생활」, 『현대문학』, 1955.9, 136-139면.

_____, 「고독한 영웅」, 『현대문학』, 1958.1, 86-104면.

2. 단행본

김진기, 『손창섭』, 건국대학교출판부, 2003.

방민호, 『한국 전후문학과 세대』, 향연, 2003.

백승영, 『니체, 디오니소스적 긍정의 철학』, 책세상, 2005.

_____, 『니체, 철학적 정치를 말하다』, 책세상, 2018.

서준섭, 『감각의 뒤편』, 문학과지성사, 1995.

송하춘 편, 『손창섭-모멸과 연민의 이중주』, 새미, 2003.

안진, 『미군정과 한국의 민주주의』, 한울아카데미, 2005.

이호규 엮음, 『손창섭: 생래(生來)와 현실의 비극적 함수』, 글누림, 2011.

정철훈, 『내가 만난 손창섭』, 도서출판 b, 2014.

한수영, 『전후문학을 다시 읽는다』, 소명출판, 2015.

프리드리히 니체, 김미기 옮김,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1』, 책세상, 2001.

_____, 김정현 옮김, 『선악의 저편/도덕의 계보』, 책세상, 2002.

_____, 백승영 옮김, 『바그너의 경우 외』, 책세상, 2002.

_____, 정동호 옮김,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책세상, 2002.

3. 논문

강유진, 「손창섭 소설의 변모 양상 연구」,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김민수, 「손창섭 소설에 나타난 공동체 의식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7.

김주언, 「우발성의 휴머니즘-손창섭의 소설을 대상으로」, 『비교문학』 52집, 한국비교문학회, 2010, 5-23면.

김진기, 「반공의 내면화와 정체성의 구축」, 『겨레어문학』 41, 겨레어문학회, 2008, 425-458면.

_____, 「손창섭 소설과 『사상계』」, 『한국언어문학』 84집, 한국언어문학회, 2013, 327-364면.

_____, 「1950년대 손창섭 소설의 현실지향성 연구」, 『어문논집』77, 민족어문학회, 2016, 69-108면.

박소영, 「미군정기 통역정치: 이묘묵을 중심으로」, 『통번역학연구』 Vol.23, No.2, 한국외국어대학교 통역번역연구소, 2019, 93-116면.

박찬효, 「손창섭 소설에 나타난 남성의 존재론적 변환과 결혼의 회피/ 가정의 수호 양상」, 『상허학보』 42집, 상허학회, 2014, 381-414면.

방민호, 「손창섭의 ≪낙서족≫에 관한 일고찰-자전적 소설과 세대론의 관점에서」, 『한국현대문학연구』 13집, 한국현대문학회, 2003, 299-328면.

_____, 「손창섭 소설의 외부성: 장편소설을 중심으로」, 『한국문화』 58집,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012, 197-228면.

백승덕, 「이승만 정권기 국민개병 담론과 징병제 시행」,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이수형, 「1950년대 손창섭 소설에 나타난 죄의식에 관한 연구」, 『한국학논집』 41집,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2010, 219-223면.

이현석, 「손창섭 소설에서 나타나는 부정성의 의미 변화에 관하여」, 『한국문학논총』 제 50집, 한국문학회, 2008, 417-443면.

정수영, 「손창섭 소설에 나타난 허무주의의 변모와 극복 양상」,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8.

정은경, 「손창섭 소설에 나타난 악(惡)의 표상 연구」, 『어문논집』 54, 민족어문학회, 2006, 313-347면.

<Abstract>

The Relation between Son Chang-seob's short stories in 1950s and Nietzsche's Ethics

Seo, Eun-Hye

This paper shows the relation between Son Chang-seob's memory of reading Nietzsche and his creating narratives in his short stories. Son did not remain much memoirs about his own life, so most researchers have a tendency to refer to his autobiographical novels such as *Work for Amusement*(「신의 희작」) According to *Work for Amusement*(「신의 희작」), emotion that govern his life is guilt and resentment, which libido switches from inside to outside of the ego.

Nietzsche also set up the human being according to their existential state, the weak and the strong. The weak is who have resentment towards the world and want to be socialized as possible. The strong, which can be developed the super-man later, is alone and generous. They do not easily have resentment towards other people and rather they feels the responsibility of their beings and world. It shows the strong power of inside. Son must be found this frame attractive, because he consider himself as the weak, in Nietzsche' sense. *Work for Amusement*(「신의 희작」) shows complex and the will of conversion who want to be the strong.

Son describes the relation between the individual and violent community in *The Victim*(「피해자」), *Writing in Blood*(「혈서」)

Living(「생활적」). Difficulties of finding job, compulsory marriage and self-alienation, isolated person by community are well described in these stories. From 1955, Strong characters who realize the will of power that started from "*Disturbance*(저어)" leads to "*Lonely Hero* (고독한 영웅)," and "*human debris*(잉여인간)" These people are in the precisely opposite position compared to the characters who show excessive guiltiness in early short stories. They strongly resist empty formalities and vanity and corruption in 1950's Korean society and that is much similar to the attitude of Nietzsche's strong person, sovereign individual.

In conclusion, Son's experience reading Nietzsche influences his autobiographical writing and to criticize about the severe corruption in postwar society.

Key words: Son Chang-seob, Nietzsche, the weak, sense of guilt, the strong, resentment, responsibility, sovereign individual, the power of will, corruption, postwar society

투 고 일 : 2019년 5월 15일 심 사 일 : 2019년 5월 20일-6월 12일
게재확정일 : 2019년 6월 12일 수정마감일 : 2019년 6월 26일